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및 소비수준

손상희(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정진화(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

김정은(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겸임교수)

박종욱(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은 정부의 생계지원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적응을 이루어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경제적 적응을 취업이나 소득획득,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적응과 자립이라고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창출활동뿐 아니라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가계는 소비지출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취업에 주목하였고, 이들이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을 영위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만족스러운 소비생활과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이 취업과 소득획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이들의 취업이 실질적으로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취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드러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탈수급 노력과 근로동기가 촉발되고 경제적 자립이 더욱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그들의 소비생활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주목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와 이를 통한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에 유의미한 영역들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소비지출 수준과 함께, 인적자본, 그 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높은 이들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여 보험 및 건강에 관련된 소비수준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소비지출의 내용 및 재화의 보유와 열망수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지출행태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만25세에서 만60세까지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교분석을 위해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이 각각 절반 정도 차지하도록 표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직접 면접조사, 눈덩이 표집, 탈북인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등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대상자 확보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278명의 조사결과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여성 응답자의 70%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택관련지출과 대부송금 등 고정지출비용이 많아 소비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제한되어 있었다. 저축과 부채 관련 지출 역시 생활비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채의

경우 탈북여성 응답자의 20% 정도만이 부채를 지고 있어 제약된 생활비 한도 내에서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를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 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자집단이 미취업자집단에 비해 생활비 지출과 저축 및 보험지출이 많았다. 취업자의 경우가 저축, 보험, 대북송금에 따른 지출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북한이탈주민 가계에서 여성의 취업이 소비수준 향상과 가족 지원 및 미래 대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의료기관 이용이 주를 이루어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예방 차원의 사전적 건강관리에 있어서 취업집단이 더 많이 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소비수준 결정요인의 분석에서 취업여부와 직업형태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통제할 경우에 독립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에 대해 취업은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본인의 근로소득 혹은 가계소득의 선행변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취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